

당정청 “하반기 물가안정 최우선”

‘민생예산 협의회’ 구성 내년 관련예산 적극 편성

‘복지사각’ 해소·등록금 지원 소득 연계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 예산 당정청협의회의’를 구성,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의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한나라당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민생예산 당정청협의회의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민생과 관련한 여러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당 정책위와 관계 장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 예산안에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 복지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제, 사회보험제도 등 여러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후 당정이 협의하

기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선 당이 정부 대책의 미흡을 지적함에 따라 당정이 조속한 시일 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하반기 거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밝히면서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고 당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학 등록금은 3%밖에 안 올랐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심지어 57%까지 인상됐는데도 현 정부에서 인상된 것으로 잘못 인식됐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독과점 시 장구조와 유통구조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혁신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보고했으며 당측 참석자들은 과감하고 전향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원희룡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원하는 것을 주되 대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회적 대화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의 김성환 최고위원은 “더 이상 추가 감세는 없고 감세 중단이 당론”이라며 “다만 법인세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美, FTA 비준 9월 처리 가닥

커크 USTR 대표 “늦지 않은 시기 비준할 것”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 제출 시점을 비롯, 비준 절차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오전 워싱턴 DC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서비스 재계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개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아주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이들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늦지 않은 시간에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날 8월 의회 휴회전 한미 FTA 비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 백악관이 더 이상 8월 처리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는 분석이 확산하는 가운데 커크 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비준 추진 시점에 대해 “늦지 않은 시기”라고만 말했고 “8월 휴회전 처리”라고 비준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커크 대표가 “늦지 않은 시기”라고 언급한 것은 8월 의회 휴회가 끝

난 후 가을 회기에 한미 FTA를 비준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후퇴를 하더라도 9월 중에는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이견과 FTA 비준절차에 대한 협상을 벌여 8월 의회 휴회전 비준을 추진할지, 아니면 9월 처리쪽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USTR 및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 시기·방식 등 절차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중이며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미 행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미 FTA 처리 9월로 넘길수도”

한나라 남경필 최고위원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 “미국 의회가 (회기 마감일인) 8월6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9월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동일위원회 위원장

인 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보다 앞서갈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의회 처리가 9월로 넘어가더라도 여야정 협의를 통한 논의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이 여야 협의를 통해 FTA 처리 일정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8월 국회에 상정해 논의

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FTA 처리를 9월로 넘긴다’며 양해를 구했다는 일부 보도는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남 최고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한다”며 “남북 분산개최는 아주 많은 난제가 있으나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을 열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남북 분산개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앵이 갈매기 힘찬 날갯짓

영광 칠산도 앞바다에서 21일 앵이갈매기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있다. 앵이갈매기는 울음 소리가 고양이와 비슷해 ‘앵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최근 번식철을 맞아 수만마리가 칠산 앞바다를 찾고 있다. <전남도 제공>

“상인조직 지원 늘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세미나

대형 유통시설의 위세에 눌려 활로를 찾지 못하는 농어촌 전통시장을 되살리려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을 늘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상인연합회 전남지회는 22일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낙연)이 개최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앞서 제출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및 건의문을 통해 “상인회 조직 활성화 없이 시장활성화 실효성이 미미할 뿐”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 주체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 전남지회는 이어 “중소기업청과 전남도 및 시·군 등 관련 기관이 시설행태나 경영현�태와 사업 심의 때 상인연합회가 추천한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유성 전남진장흥토요시장 사무국장은 “일본 전통시장들이 성공

한 것처럼 상인과 주민이 중심이 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신해야 한다”며 “자본과 경영의 영세성을 벗어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시장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문에서 “전통시장들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점포 간 상생협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매유통환경의 경색이 심화해 고객감소 등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수박람회, 남해안권 선도적 역할 해야”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주장

남해안권을 동북아 경제 거점 및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남해안발전’이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여수박람회는 지구촌의 바다 환경 개선이라는 대외적 목표 이외에 남해안발전을 촉진시키는 전환점이자 선도사업”이라며 “박람회장 주변의 사후 활용방안을 넘어서 동북아 해양관광 명소로 남해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남해안권 발전계획의 경우 국민의 정부 시절

‘남해안국제관광벨트’, 참여정부 때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MB 정부가 들어 ‘남해안선벨트’ 등으로 추진돼 왔지만 선연적 의미가 그칠 정도로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남해안 발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해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히 한국 방문 중국관광객이 한해 130만명에 불과한 반면, 중국방문 한국관광객은 500만명을 웃돌고 있는데,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관광 활성화 정책 등으로 자칫 국내 관광 시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간 5000만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 중 평소 바다와 섬을 접하지

못한 내륙 중산층과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신혼부부가 남해안관광의 주요 수요층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와 남해안권발전계획이 쌍무마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에 반영된 사업 중 남해안권 루트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과 해양산업진흥, 중국의 절강성과 강소성을 중심으로 한 주요 타깃 선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해안 국제해양관광명소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전라선 전철을 고속전철로 변경해 최소한 시속 230km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량할 것 ▲남해안일주도로(1184km) 건설 ▲남해안을 통합생태권으로 바꿀 수 있는 목포-보성간 남해안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낭만이 가득한 신비의 섬 제주도

제주 특가상품! (2박 3일) 95,000원~

기간	교통편	세부 일정	비고
제 1 일	09:00 스타페리 14:00전 전용버스	목포항 출발/ 제주항 도착 제주 현지직접 미팅후 에코랜드기차여행 - 1800년대 증기기관차인 돌트레기마을 모험하여 영국에서 수제제품으로 제작된 평탄기차로 302만명의 꽃자랑 현시미를 기차로 체험하는 테마파크 숙박 및 식식 숙소: 일반호텔	중식·자유식 석식·호텔식
제 2 일	전 일 전용버스	조식 후 서연교/세심 외돌고-돌메남굴 울레 트레킹(약 1시간소요예정) 석부작 대마농장/ 중식 해피타운(중국어, 오로바이소) 로케디오월드/영화박물관(50년대풍) 필수 옵션: 더-마파크 숙소: 일반호텔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제 3 일	전용버스	조식 후 민.공예품 전시장 유여리 생태공원/홍대지소 승마, 조랑말 체험 / 홍대지소 제주아트랜드(미술관, 분재원 등) 민속보존마을/ 농수산물직매장 해녀촌 필수 옵션: 삼국지랜드(변경소) 제주항 출발 / 목포항 도착	중식·현지식 석식·자유식

※ 상기 일정 및 조식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KTX 타고가는 서울로 gogo~

서울로 명소탐방 시티투어 기차여행 (1박 2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 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자유식

1 일차 연계차량
남산 케이블카 탑승(편도 10분소요) - 남산타워 전망대 및 서울성곽, 동수대 등 관람(남산타워 전망대 요금별도 8,000원)
청계천 산책(청계광장-모전교-광통교-광교구간 / 약 20분)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 / 청와대 뒷길 경유)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경명전-교대전 / 궁해설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화요일은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으로 대체합니다.
한강 유람선 탑승(상류-동작대교-하류-당산철교 / 1시간소요)
숙소 체크인 및 자유시간
기상 및 조식 후 용산으로 이동, 전경기념관 관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 및 국립중앙박물관 이동

2 일차 연계차량
인사동 맛집에서 자유식
인사동 시장 둘러보기
동대문시장 둘러보기
남산 한옥마을로 이동 및 관람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제곡식
KTX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자유식

요금안내 (1박 2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목포 - 용산 요금안내
월~목	136,000 129,000	140,000 133,000
금/토/일/공휴일	153,000 146,000	157,000 150,000
월~목	131,000 125,000	135,000 128,000
금/토/일/공휴일	148,000 142,000	152,000 145,000
월~목	128,000 121,000	131,000 125,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148,000 142,000
월~목	128,000 121,000	128,000 121,000
금/토/일/공휴일	145,000 138,000	145,000 138,000

※ 포함내역: KTX왕복티켓, 시티투어차량, 경복궁입장료, 남산케이블카(편도), 한강유람선승선료, 가이드

※ 결제번호: 농협 317-0002-3837-31(주)아름여행사 / 농협 352-0115-4438-33 예금주 이정우

서울로 시티투어 기차여행 (당일)

교통	시간	일정	비고
KTX402	06:00	목포역 출발-광주 승정(06:37)-정읍(07:07)-익산(07:33)-용산역(09:33)	미팅 및 차량 탑승
KTX504	07:30	광주역 출발-정읍(08:10)-익산(08:33)-용산역(10:18)	자유식

1 일차 연계차량
남산 케이블카 탑승(편도 10분소요)
청계천 산책(청계광장-모전교-광통교-광교구간 / 약 20분)
무교동 낙지골목에서 자유식
경복궁으로 이동(광화문광장 / 청와대 뒷길 경유)
경복궁 관람(근정전-사정전-경회루-경명전-교대전 / 궁해설 포함)
화요일은 덕수궁 관람으로 대체합니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관람
여의도 한강공원 돌리보 & 한강 유람선 승선 (상류-동작대교-하류-당산철교 / 1시간소요)
KT417 20:10 용산역 출발-익산(22:02)-정읍(22:24)-광주 승정(22:51)-목포(23:24)
KT515 19:20 용산역 출발-정읍(21:37)-광주(22:19)

요금안내 (당일)

요일구분	광주 - 용산 요금안내	목포 - 용산 요금안내
월~목	86,000 79,000	89,000 82,000
금/토/일/공휴일	88,000 81,000	91,000 84,000
월~목	81,000 75,000	85,000 78,000
금/토/일/공휴일	83,000 77,000	87,000 80,000
월~목	78,000 71,000	81,000 74,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83,000 76,000
월~목	78,000 71,000	78,000 71,000
금/토/일/공휴일	80,000 73,000	80,000 73,000

※ 포함내역: KTX왕복티켓, 시티투어차량, 경복궁입장료, 남산케이블카(편도), 한강유람선승선료, 가이드

Arum (주)아름여행사 1577-0419

유남해여행사 1588-7429